

이사야의 神學 小考

吳 秉 世*

◇ 目 次 ◇

- I. 歷史的 背景
- II. 이사야神學의 特異性
 - 1. 이사야의 豫言
 - 2. 하나님의 聖潔性
 - 3. 歷史를 支配하시는 하나님
 - 4. 人間의 罪性
 - 5. 하나님의 宇宙的 救援
 - 6. 메시아를 통한 榮華로운 未來
- III. 結 論
- 參考文獻

I. 歷史的 背景

1) 주전 8세기는 장기간의 엘리사의 사역이 끝나고, 기록선지의 시대가 시작된 때이다. 이사야는 유다왕 웃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이르는 네 왕시대에 예언하였다(이사야 1:1). 이때는 Tiglath-pileser III¹⁾가 일어나서 새로운 앗수르의 시대를 시작할 때였는데 이러한 앗수르의 영향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크게 미친 시기였다.²⁾

2) 웃시야의 통치가 52년간 계속되는 동안 무역이 활발하고, 강력한 군대를 소유하여, 솔로몬이후 가장 강한 유다 왕국을 이루고 있었다. 웃시야는 요새를 강화하고, 홍해의 무역을 진흥시키고, 암몬족으로부터 조공을 받고, 블레셋인들과 아라비아인들과

* 교수, 성경신학 전공

1) 성경에서는 “불”이라고 불렀다. 열왕기하 15:19. 이하 불이라고 호칭한다.

2) E. J. Young, *The Book of Isaiah*, Vol. I. Grand Rapids: Eerdmans, 1965, pp. 11-12.

의 싸움에서 이긴 때였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 번영속에 종교적 형식주의와 도덕적 부패가 따라왔다. 성전의 수입은 증가하였으나 종교와 생활사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물질적 번영중에 하나님과늘 거리가 멀어졌다.

3) 734 B.C.에 수리아와 북방 이스라엘이 앗수르를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큰 사건이었다. 수리아왕 르신과 이스라엘왕 베가가 앗수르왕 불을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체결한 다음 유다왕 아하스에게 이 동맹에 가입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러나 유다왕이 거부함으로써 수리아와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유다를 치려고 하자 아하스왕이 두려워하여 앗수르왕에게 원조를 요청하였다. 이때에 이사야 선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하스왕에게 앗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아하스왕이 이사야의 말을 듣지않음으로 임마누엘 예언이 선포되었다(이사야 7 ; 열왕기하16).

아하스의 청병으로 앗수르왕 불이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 왕 르신을 죽이고, 백성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갔다(열왕기하 15 : 29). 또한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갈릴리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고 베가를 그 속국왕으로 삼았다. 아하스가 앗수르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서 그의 승리를 축하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아하스는 예루살렘에 우상숭배를 도입하였다. 그뿐만아니라 이지방 풍습인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통과케하는 악한 일까지 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재촉하였다(열왕기하 16 : 10-16 ; 역대기하 28 : 3).

4) 그후 히스기야가 아하스를 이어 유다왕이 되어 29년간 왕위에 있었다(727-699 B.C.).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은 그의 나이가 25세 때였는데, 그는 이사야보다 15년이 젊은 것으로 생각된다. 히스기야는 그의 부친 아하스로부터 무거운 짐을 물려받았으나, 그의 부친과는 달리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우상을 제거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다(열왕기하 18 : 4, 22).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백성까지 초청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역대기하 30 : 1),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정치를 행하였다.

5) 이스라엘왕 베가가 20년동안 통치한 후 호세아로 말미암아 살해되었는데, 그것이 732 B.C의 일이었다. 그리고 727 B.C.에 앗수르왕 불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왕 호세아가 앗수르에게 조공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래서 앗수르의 새로운 왕 살만에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사마리아를 침공하였는데, 이 전란 3년동안에 살만에셀왕이 죽고 살곤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이 살곤왕의 공격으로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앗수르의 영토가 되었으니, 이때가 722 B.C.였다. 앗수르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갔다(열왕기하 17 : 6, 24). 이때에 유다는 조공을 바칠것을 조건으로 하고 겨우 멸망을 면했는데, 이것이 이사야 시대의 두번째 위기였다.

6) 앗수르왕 살곤의 아들 산헤립이 왕이 되어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조공을 바치도록

를 요구하였다(열왕기하18). 그리고 산헤립이 와서 46개 성과 200,150명의 유대인들을 앗수르로 사로잡아 가고, 300달란트의 은과 30달란트의 금을 가져갔다(열왕기하 18 : 17-19 : 8 ; 이사야 36 : 2-37 : 8). 그리고 산헤립이 그의 비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내가 히스기야를 예루살렘에 가두기를 새장속에 새를 가둔것과 같이 하였다”고.³⁾ 이 일 후 다시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공격해 옴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예루살렘이 앗수르군대로 부터 보존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때에 앗수르 군대 185,000명이 몰살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7) 이렇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사야가 예언하였다. 그는 웃시야왕이 죽던 740 B.C.부터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701 B.C.까지 예언하였다. Leon Wood는 이사야가 740 B.C.부터 680 B.C.까지 60년간 예언하였다고 하였다.⁴⁾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가 60년간이나 예언하였다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어려움으로 40년이상 예언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사야는 위대한 인격자였고, 정치적 능력의 소유자였으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써 당시인들에게 큰 감화를 끼쳤다. 이사야가 므낫세왕때에 얼마나 활약하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Mishnah에 의하면 이사야가 므낫세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정 “이사야의 승천”에는 그가 톱으로 켄바되어 죽었다고 하나 확증할 수는 없다.⁵⁾ 그는 왕족이었다고 전해졌으며, 유다왕들과 친했고, 정치적 영향을 크게 발휘하였다. 이사야는 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는 구원이다”라는 것이고 보면 그가 왕족이었다는 전설이 사실로 생각이 된다. 그 이유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왕족에 한해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그는 부인과 두 아들이 있었다. 그는 평생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였고, 그의 사상은 예루살렘을 중심하였고, 그는 예루살렘이 보존되며, 새롭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II. 이사야神學의 特異性

1. 이사야의 豫言

이사야는 “선지자의 왕” 또는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리우며,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을 밝혀 놓았다. 그는 웅변가요, 시인이었으며, 그는 히브리어의 황금시대에 살

3) G. L. Robinson, “Isaiah,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Vol.III, Chicago : Howard Severance, 1930, p. 1497.

4) Leon J. Wood,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Baker, 1979, p. 298.

5) G. L. Robinson, *op. cit.* p. 1496.

고 있었고, 그의 문체는 아름다움과 강력함이 돋보이고, 그의 글은 히브리문학의 걸작품이라고 불리운다. 우리가 어휘로서 구약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통계가 나온다.

에스겔	1,535
예레미야	1,653
시 편	2,170
이사야	2,186 ⁶⁾

이사야의 예언은 2부로 분류가 되는데, 제 1부는 1장에서 39장까지이고, 제 2부는 40장에서 66장까지이다. 제 1부는 유다와 열방의 죄를 책망하고 또한 심판이 선포되었으며, 제 2부는 위로와 소망이 강조되었다. 비평가들 중에는 1장에서 39장까지를 제 1 이사야, 40장에서 55장까지를 제 2 이사야, 그리고 56장에서 66장까지를 제 3 이사야로 구분하는 자들이 있다.⁷⁾ 그러나 이런 설들은 증명할 수 없는 가설에 불과하다.⁸⁾

그런데 이사야 선지에게 특이한 문구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QEDOSH ISRAEL)라는 말이다. 이 말의 뜻에 대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을 성별하신 자”라고 말하는 자가 있으나, 이 말은 G. Vos 교수가 말한대로 두가지 뜻이 합쳐서 된 말이라고 봄이 더 타당하다. 곧 “여호와와 거룩한 자이다. 그리고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합성어라는 것이다.⁹⁾

이 말이 이사야서에 26회 사용되었는데, 제 1부인 1장에서 39장에 12회와 제 2부인 40장에서 66장까지에 14회 쓰여졌다. 특별히 제 2부는 구약신학 자체라고 할 수 있는데, 제 2부에 속하는 27장(40장에서 66장)은 신약 27권의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사야 52:13-53:12은 성경의 속죄론을 가장 잘 묘사한 귀절이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실로 신학자중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사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서 세련되고 강한 종교적 반응을 다음과 같이 보였다.

- 1)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대한 지각이 표현되었다.
- 2) 하나님의 위엄과 피조물, 특히 죄있는 사람사이에는 측량할 수 없는 거리가 있다.
- 3)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비할바 없는 헌신봉사가 요청된다는 것이다.¹¹⁾

6) G. L. Robinson, *op. cit.* p. 1946.
 7) G. von Rad, *Old Testament Theology*, trans, by D.M.G. Stalker, Vol.II. New York: Harper and Row, 1965, pp. 238 ff; 278ff.
 8) O. T. Allis, *The Unity of Isaia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1950, pp. 1-50 참조.
 9) G. Vos, *Biblical Theology: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Eerdmans, 1954, p. 269.
 10) W. C. Kaiser,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Zondervan, 1978, pp. 204-205.
 11) G. Vos. *op. cit.* p. 254.

이사야는 하나님을 성전에서 뵈옵고,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부른것은 자기 자신을 바로 살펴서 하나님앞에 설 수 없는 불결한 것을 통감하고 깊은 죄감에서 고백한 것이다.¹²⁾ 이것이 인간 본연의 자세이다. 선지자 이사야는 때묻은 옷과 더러운 옷을 입은 자가 거울앞에서 자신을 바로 발견하듯이 하나님앞에 선 자신을 바로 보았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접하고 천사의 성결케해 주심을 받고 변화된 자리에 있게 되었다. 그가 자신의 주변을 살펴볼 때에 율법의 외형주의와 백성의 배교와 도덕적 부패를 보았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의 반역과 부도덕한 죄를 회개하도록 독촉하였다(이사야1:18). 그러나 나는 거룩하나 너희는 망할 자라고 백성을 정죄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도록 부르짖으며 평생을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동족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사랑으로 권고하되, 하나님께 돌아오면 구원과 소망이 있을 것을 일깨워 주었다.

2. 하나님의 聖潔性

이사야신학의 중심은 이사야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접한 하나님의 거룩성이었다. 이사야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할 때 보좌에 좌정하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다. 이때에 하늘의 천사인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이사야6:5)라는 소위 Trisagion의 음성을 들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는 것과 그의 영광이 땅에 충만한 것을 보았다. 이 비전이 이사야신학의 열쇠가 된다. 하나님의 거룩과 그의 영광이 그의 신학의 두 중심 개념인데, 이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이 그의 예언과 사역에 뿌리깊게 박혀 있으며, 때를 따라 솟아오르는 우물같았다.

이 “거룩하다”(QADASH)라는 형용사와 “거룩”(QODESH)이라는 명사는 동사의 근원이 되는데, 이 말은 본래 “절단” “분리”에서 왔다고 생각한다. 이 히브리어의 어근은 Akkadian의 QADASHU인데, 이 말의 본 뜻은 “빛난다”라고 생각한다.¹³⁾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고, 끊어졌고, 빛나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뜻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분리되어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피조물을 초월해 계시다는 것이다.¹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자신도 거룩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자신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앞에 비교할 수 없이 불결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임을 깨달

12) W. Zimmerli, *Old Testament Theology in Outline*, trans, by D. E. Green, Edinburgh: T. and T. Clark, 1978, p. 191.
 13) L. Koehler and W. Baumgartner,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E. J. Brill, 1958, p. 825.
 14) G. Vos. *op. cit.* pp. 264-265; E. J. Young, *op. cit.* pp. 242-244.

았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다”(이사야 6 : 5)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기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의 백성과 구별되시는 분이시지만, 우상이란 대조적으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였다. 이점에 있어서 이사야는 우상을 ELILIM이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nonentities)는 말이며, 헛것이라는 말이다.¹⁵⁾ 이사야는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 한분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한다(이사야 2 : 18, 20).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초월해 계심으로, 이에 따라 이사야는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이사야 40 : 18)고 하였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을 “지존 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셨다”(이사야 57 : 15)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보좌에 영원히 좌정하시고, 항상 거룩하시다는 것이다. 이 거룩하신 것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에 다 관계가 되어서, 성전이 거룩하고, 하늘이 거룩하고 안식일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산이 거룩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구별되어 속된 것이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와같이 거룩하시어서 사람들과 구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과 구별된 존재가 되신다는 것이다.¹⁶⁾

이 거룩하다는 것은 종교적이나 의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윤리 도덕면에서 이사야는 강조하였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고상하시어서 죄와 상관이 없으시고, 죄를 결코 용납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성은 범죄하고 완악한 백성에게 심판행위로 나타난다. 이스라엘 백성중에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주장을 가진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성전이 있으니 예루살렘은 보존되리라는 잘못된 견해를 가졌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심으로 죄를 용납하시거나 묵인하시지 않으시고 죄를 분명히 찾아내어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밝혔다(이사야 5 : 16 ; 10 : 22).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에 있어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사야 57 : 15에서 말하였다. 첫째는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분으로서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다는 것이고, 둘째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에게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라는 것이다.¹⁷⁾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은 사람이 가까히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만 아니라, 그

15) G. Vos. *op. cit.* p. 255.

16) W. C. Kaiser, Jr. *op. cit.* p. 206.

17) G. Vos. *op. cit.* p. 266.

의 영광을 위하여 남은 자들을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다는 것이다(이사야 6 : 12).

3. 歷史를 支配하시는 하나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아니라,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 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운행하심으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일어나고 또 사라진다고 하였다(이사야 14 : 24-27).

이사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여호와”(TSEBAOTH YAHWEH)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이 “만군”(TSABA)이라는 말은 인간군대와 조직된 초인간적 군대인 천사들과 별들과, 또한 전체 피조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사같은 영물들에게 둘러싸여 계시며, 천사들은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다(이사야 6 : 37 : 16). 따라서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그의 원수를 물리치는 승리자에 대해서 쓰는 말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어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모든 자연과 세계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이다(이사야 6 : 5 ; 24 : 23).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는 모세 5 경과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는 나타나지 않고, 선지서에 많이 쓰여졌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은 축소된 형태로 쓰여졌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고유명사가 연계형으로는 쓰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Geerhardus Vos교수는 설명하고 있다.¹⁸⁾

이사야는 비록 지상의 어떤 나라가 강해져서 그 침략의 야욕을 펴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역사의 주인공되신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비록 앗수르 제국이 강성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공략한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러함과 일반이로다”(이사야 10 : 15)라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 결국은 앗수르 제국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봉사하였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자들은 아닌 것이다.

이사야 13장에서 23장에는 이사야 선지 당시의 10개국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 여기에는 바벨론, 앗수르, 블레셋, 모압, 수리아, 애굽, 에디오피아, 에돔, 아라비아와 두로등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날이 이르면 이 모든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앗수르로 더불어 셋이 세계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나의 백성 애굽이

18) G. Vos. *op. cit.* p. 258.

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앓수르여, 나의 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 이라”(이사야 19 : 24-25)고 하였다. 애굽은 한때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으나 후에 그들을 구출하시고, 또한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말씀하셨다(이사야 19 : 19-22). 이스라엘외의 이방국가들이 스스로 존재하며, 흥왕하다가 때가 되어 패망한것 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중에, 하나님의 계획하신바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¹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국가들을 보실 때에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같이, 저울의 적은 티끌같다”(이사야 40 : 15, 17)고 하였다. 이들은 스스로의 힘을 자랑하고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없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주변국가들이 하나님의 권위하에 있으며, 이방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준수하는 사명을 지니고 심부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래스를 그의 도구를 삼으신 것에서 분명하다(이사야 41 : 1-4).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경고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토기장이와 같이 나타나셔서, 모든 피조물을 진흙과 같이 주무르신다. 때가 되어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또한 버리시기도 하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를 지배하심에 있어서 어느 누구와 상의하시는 것이 아니며, 어느 누구와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도전적인 말씀을 선포한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이사야 46 : 5 ; 40 : 18, 25 비교). 그리고 하나님의 특이하신 존재에 대해서 이사야는 여러가지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1)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라(43 : 3, 11 ; 41 : 13 ; 42 : 6, 8).
- 2)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41 : 4 ; 44 : 6 ; 48 : 12).
- 3) 나는 그니라(48 : 12 ; 41 : 4 ; 43 : 10, 25 ; 46 : 4).
- 4) 나는 하나님이라(43 : 13 ; 46 : 9).
- 5) 나는 네 하나님이라(41 : 10)
- 6) 하나님이 가라사대(40 : 1).

이렇게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므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자가 없고 오직 그만 홀로 우주의 미래까지를 지배하시는 왕이 되신다는 것이다.²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만 지배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모든 이방 나라들도 그의 장중에 두시고, 그의 권위하에 있게 하신다(43 : 3-14 ; 44 : 24-25 ; 47 : 5-9). 그래

19) W. C. Kaiser, Jr. *op. cit.* pp. 210-211.

20) *Ibid.*, p. 214.

서 하나님은 왕으로 호칭이 되셨다. 또한 하나님은 열국의 현재만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사를 다 아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시다(41 : 22, 23, 26 ; 42 : 9 ; 43 : 9-10 ; 44 : 7-8 ; 45 : 21 ; 46 : 10-11 ; 48 : 5).

하나님께서 역사를 지배하시는 좋은 표시로 파사왕 고래스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는 동방 파사 나라의 제왕으로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는 영웅이며, 이스라엘 구원의 인간적 대리자였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150년후에 일어날 이 파사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여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다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에 간섭하거나 조언할 자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이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것이다. 이 고래스에 관한 기사때문에 비평가들 중에는 이것을 사후예언(vaticinia post eventum)이라고 고집하는 자들이 있다.²¹⁾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의 특색은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하는 종교이다. 고래스는 이스라엘 구원의 인간 대리인이고, 메시야는 신적 대리자였다. 만일 인간 대리자 고래스를 부인한다면, 이것은 곧 메시야를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비평가들 중에는 고래스왕의 기사를 주전 8세기의 이사야의 기록으로 취급하지 않고 포로후시대의 무명의 선지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무명의 선지자의 인적 사항은 알 수 없다고 한다.²²⁾ 우리는 이점에 있어서 고래스왕에 관한 사건이 포로후시대의 기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언이라고 할 수 없다. 비평가들은 이와같이 하나님의 예언의 초자연성을 부인하고, 이사야서도 고대 근동의 일반 문헌의 일종으로 취급하려는 것으로서, 이것은 신약의 증거, 곧 그리스도와 사도의 증거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von Rad교수같은 비평가들이 무명선지자인 제2 이사야의 저자를 알 수 없다고 하나 그것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니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분명히 주전 8세기의 이사야가 기록하였으니 인적사항을 달리 쓸 필요가 없다고 확인하는 바이다.

역사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상 국가의 세력이나,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지배하에 있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모든 신들도 우상에 불과함으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사야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담대히 말하였다.²³⁾

4. 人間の 罪性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결성을 강조한 동시에 대조적으로 인간의 죄성을 밝히고 있다.

21) O. T. Allis, *op. cit.* pp. 58-61 참조.

22) G. von Rad, *op. cit.* pp. 238f.

23) W. 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rans. by J. A. Baker, Vol. I, London : SCM Press, 1961, p. 225.

그것은 단순히 사람이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라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기록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과 비교할 때에 사람은 도저히 하나님께 접근할 수 없는 불결한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이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고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 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으로 다”(이사야 6:5)고 외쳤다. 이것은 일반적인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도덕적인 파멸을 뜻하는 말이고, 자신이 저주받을 존재임을 통감한 표시이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결의 계시에 대한 이사야 선지의 반응은 죄의식이었다. 이사야는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감히 바라보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모습을 대할 때, 너무나 기록하시고, 존엄하신 그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자인하였다. 자신이 무서운 범죄 자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한 백성의 일원으로, 죄와 허물이 많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뵈었게 되었다는 것이다. 죄없는 천사들도 그 얼굴을 가리우고, 그 발을 가리고, 기록하다 라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는데, 하물며 부패한 죄인으로 어찌 그 하나님앞에 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이사야는 죄를 논할 때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피야 한다고 주장한다. 죄는 단순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정조를 유린하거나, 남의 물건을 도적질 하였다는 정도의 대인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죄라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의 생애에 필요없는 자로 취급하는 것이고, 대신 지음을 받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의지하는 행동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나 땅위의 물질적 힘이나, 인간적 세력이나, 어떤 권력이나,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이외의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이 죄이다. 심지어 자신의 두뇌나, 재간이나, 기술이나, 어떤 배경을 의지할 때에 이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반역의 죄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없이 자신을 앞세울 때에 부정적이고 부도덕하며, 부패한 행동이 나오고 무책임한 일과,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모든것이 범죄인 것이다.

이사야가 본 이스라엘의 범죄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이외의 것을 의지하였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 William Dyrness는 다윗의 언약과 연결지어 설명하였는데 타당성있는 해석이다.²⁴⁾ 이사야는 “너희가 돌이켜 인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이사야 30:15). 이렇게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요청하였다.

이사야는 남의 허물을 먼저 본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앞에 자신의 허물을 먼저 본 자였다. 그는 남에게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뵈었고 약간의 겸손한 태도를

24) William Dyrness, *Themes in Old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1979, p. 219.

나타낸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앞에 망할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았다.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허물이 많고, 적다는 것이 아니라, 밝은 햇빛아래 더러운 쓰레기통같은 자신을 발견한 것이다.

이사야는 자신의 죄인됨을 깊이 깨달은 다음, 그는 유다족속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였다(이사야 56:9-15:12).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바 죄악을 지적하여 회개함으로 같이 구원얻도록 독촉한다. 이사야는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바벨론 포로와 민족적 고통이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상기시키고 있다.²⁵⁾

그러나 이사야는 자신의 죄때문에 낙망하고 좌절을 당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입술을 정결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다.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위치를 낮추셔서 사람의 수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정결케하셔서 하나님의 수준에 끌어 올리시는 역사를 이루신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의 죄를 도말하신 다음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이사야에게 새로운 일을 맡기신다.²⁶⁾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입어 정결케 된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앞에 겸손히 행할뿐 아니라, 동족을 향하여 하나님앞에 겸손히 행하도록 요청하였다.²⁷⁾ 이렇게 복음의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소식을 전하였다.

5. 하나님의 宇宙的 救援

이사야는 그의 예언의 전반부인 1장에서 39장까지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뿐만 아니라, 여러 주변 국가들의 범죄에 대해서 엄히 경고하신것을 전하였다. 그러나 이제 40장이후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민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부분의 중요한 단어는 종(EBED)과 구원(YESHUAH)의 두 낱말이다. 그런데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니라, 여호와와 종(EBED YAHWEW)이다. 이 여호와와 종의 대속적 수난의 절정이 이사야52:13-53:12에 기록이 되었는데, 이 종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이다. 여호와와 종이 되신 메시아에게는 비할 바 없는 모욕과 고통이지만, 이 소식이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다. 땅에서 사람들이 위로 받기를 원하되 최상의 위로는 죄 사함 받았다는 소식이요, 구원이 죄많은 사람에게 임했다는 말씀이다.²⁸⁾

종이란 칭호는 비천의 대명사이다. 고대 근동의 약 2,000년동안의 종제도를 연구한

25) A. A. MacRae, *The Gospel of Isaiah*, Chicago: Moody Press, 1977, p. 34.

26) G. F. Oehl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rans. by G.E. Day, Grand Rapids: Zondervan, n. d. p. 473.

27) H. L. Ellison, *The Messag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Eerdmans, 1969, p. 59.

28) C. Westermann, *Elements of Old Testament Theology*, trans. by D. W. Stott, Atlanta: John Knox Press, 1982. p. 143.

Isaac Mendelsohn은 말하기를, 고대 근동에 있어서 종은 가재도구와 같으며, 이름이 없고, 주인의 완전한 소유로서 자유가 없고 가장 비참한 존재가 종이라고 하였다.²⁹⁾ 이런 미천한 것이 종인데, 여호와와 종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와 완전한 소유로서 종 자신의 자유나 의지는 허용이 안되는 존재였다. 그는 여호와와 뜻만을 전하고, 명령에 순종할 사명을 가진 자이다.

이사야는 그의 선지서 후반부에서 4개의 종의 노래로써 종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다(42:1-7; 49:1-6; 50:4-11; 52:13-53:12). 그런데 이사야는 종이라는 단수를 40장에서 53장까지에서 20회 사용하였고, 종들이라는 복수로 54장에서 66장까지에 10회 사용했다. 그런데 종이라는 단수가 집합적인 뜻으로 쓰여진 일이 있으나 4개의 종의 노래에 나오는 종은 분명히 개인적인 종인데, 이는 52:13-53:12에서 그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고난의 메시아를 분명히 말하고 있다.³⁰⁾

이 여호와와 종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에 공의를 베푸는 자이다(이사야 42:1-4). 여호와와 종은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회복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방의 빛이 되어 구원을 땅끝까지 이르게 할 자이다(49:5-6). 그리고 여호와와 종은 학자의 혀를 가져서 곤고한 자들을 도와 주되, 자신은 모든 치욕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분이다(50:4-9). 또한 이 여호와와 종은 고난을 당하여 죽고, 대신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도록 한다(52:13-53:12).³¹⁾

이렇게 여호와와 종의 수난은 우리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고, 버림받았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이사야 54). 그런데 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무리에게 미치는 것이다(이사야 55).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시고, 세우신 종 메시아의 사역이 흑암에 갇아 있던 무리에게 미쳐서 다 광명의 자리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사야가 말하는 구원받을 자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특권계층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남은 자”들이다.³²⁾ 이 남은 자들은 여호와와 종인 메시아의 사역으로 황폐한 곳에 있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베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같이 거룩한 씨들이다(이사야 6:13).

이 남은 자의 구원을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였다(이사야 43:12-21; 43:18-19). 이것을 학자들 중에는 새로운 출애굽이라고 부른다.³³⁾

29) Isaac Mendelsohn, *Slavery in the Ancient Near Ea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49, pp. 1-123.

30) 여호와와 종이 이스라엘 국가인지? 개인인지에 대해서는 A. A. MacRae, *op. cit.* pp. 59-62 참조.

31) 이에 관한 상세한 연구는 A. A. MacRae, *op. cit.* pp. 129-150 참조.

32) H. L. Ellison, *op. cit.* p. 64.

33) G. von Rad, *op. cit.* pp. 239ff.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그 특권을 향유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것은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고 메시아가 그들에게서 나옴으로 구원은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고난의 메시아의 사역으로 이 구속사역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목마른 자나 돈 없는 자, 그 누구나 초청이 되었다(이사야 55장). 이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중에서 반드시 갈라내 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이사야 56:3). 고자가 나는 마른 나무같이 자손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는것 처럼, 이방인도 그의 백성중에서 제거를 당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다 함께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이다. 선민에게서 멸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이 보편적 구원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6. 메시아를 통한 榮華로운 未來

이사야는 동시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은 고난의 날이요, 부끄러움의 날이지만 소망이 앞에 있음을 알려준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앞에 범죄하였으므로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며, 마침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는 일이 있어도 미래의 영광스런 회복의 날이 이를 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확실히 예언한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시다. “보라 이런것들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들을 고하리라”(이사야 42:9)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전 일 끝 전에 있었던 낡은 일, 어두운 가운데서 행했던 일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새일 곧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이다. 이스라엘중에 새롭고 성실한 회개가 있게 하시며(이사야 59장), 새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시고(이사야 60장)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다는 것이다(이사야 65-66장).

이 새 시대는 메시아의 사역을 통한 성령의 시대를 뜻한다(이사야 63:7-14). 이 시대는 사람의 노력이나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새로운 출애굽을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이다(이사야 63:11-14).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바를 따라서 그의 백성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성령은 여호와 종 곧 메시아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이사야 61:1).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여호와와 종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새로운 멍세지를 전파하신다고 W. C. Kaiser, Jr. 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너희는 여호와와 제사장이라고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이사야 61:6).

2) 이스라엘과 영원한 약속을 세울 것이다(61:8).

3) 그 자손을 열방중에, 그 후손을 만민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을 여호와께 복받을 자손이라고 인정하리라(61:9)³⁴⁾고 하였다.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중, 메시야의 모습은 구원의 옷과 의의 겹옷을 입은 용사와 같다. 그리고 의와 찬송을 열방앞에 나타나게 하실 분이다(이사야 61:10-11). 하나님은 이 구속주 곧 메시야를 말일에 시온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는데(이사야 59:20), 그는 의의 무장을 하고(이사야 59:15-19) 죄와 더불어 싸우실 분이다. 이제는 예루살렘이 더 포악을 체험하지 않고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겠다는 것이다.

많은 고난과 기다림끝에 하나님의 원수같은 날과 구속의 해가 이를 것이라고 하였다(이사야 63:4-6).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면 열방과 열족을 하나님께서 모우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열방중에서 도피한 자들을 먼 섬들로 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도록 하시겠다고 하였다. 또한 열방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 곧 성전 봉사자들을 삼으시겠다는 것이다(이사야 66:18-21). 과거에는 선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방나라에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구속받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과거에는 레위지파만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이 되었으나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이 제사제도의 귀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다.

메시야의 놀라운 구속사역이 이제 결실하여 이스라엘을 위시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동참하는 축복과 아울러 제사장이 되는 특전이 부여되었으며, 먼 섬나라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길이 열린다는 것이다. 여호와의 종의 위대한 사역으로 과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되어 열렸던 구원과 하나님 경배와 선교의 사명이 모든 민족, 모든 이방 백성에게 열리는 새로운 시대, 영화로운 미래가 앞으로 전개될 것을 예언하였다. 그 축복은 끝이 없이 항상 지속되는 영원한 축복이다(이사야 66:22).

III. 결 론

이사야를 “구약의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는 자가 있다고 이미 지적하였거니와, 사실은 바울을 신약의 이사야라고 함이 타당한 표현이라고 하겠다. 우리는 주전 8세기에 기록한 이사야서와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를 비교해 볼 때 그들이 전한 복음의 공통점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바울은 구원의 설계를 펴놓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주제로 로마서를 기록하였다. 바울이 먼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의에서 멀어진 사람의 상태를 밝힌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하에서 죄와 피참으로 고생하는 불쌍한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 사람들은 버림을 받아, 하나님대신 우상을 섬기는

34) W. C. Kaiser, Jr. *op. cit.* p. 218.

가련한 상태가 되었고(로마서 1:24-25), 또한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심으로 음란한 죄를 더하게 되었고(로마서 1:26-27),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 두심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많은 범죄를 더하게 되었다(로마서 1:28-32). 이런 인간의 죄와 비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소망이 없던 자가 사람이다. 이것은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도덕론자나 유대인들도 다 마찬가지이다(로마서 2:1-3:20).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포함한 우주를 지배하고 계신다는 것이 이사야서 전반부의 주된 내용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죄뿐만 아니라, 이방 10개국등 모든 지상의 사람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계를 장중에 두신 우주의 통치자시라는 것이다.

바울은 그의 로마서에서 사람의 죄 문제 해결이, 사람의 선행이나 공덕이나 어떤 법과 규범을 지킴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죄에서 해방하시는 속죄(APOLUTROSIS)와 구약의 제사제도를 따라 지성소의 시온소(HILASTERION)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죄를 입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로마서 3:21-26).

이사야는 범죄함으로 소망이 없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가서 고생하되, 영영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된 메시야의 공로로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는 소망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여호와의 종은 구약 성전의 제물처럼 남의 허물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나, 이로써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신다(이사야 53:11).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제를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사야서와 로마서가 다같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여호와의 종(이사야서)과 예수 그리스도(로마서)로 말미암아 구원이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하였다. 우리는 로마서 3:24-25과 이사야 53장의 관련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야 할 것이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고, 이방인 중에 제사장이 나와서 선민과 같이 하나님 제사의 귀족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바울이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과 맥이 통한다. 말일이 되면 천하 만민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경배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불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다(스가랴 14:16-19). 이렇게 애굽민족까지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한 구원의 보편성이 밝혀졌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믿는 모든 자는 구원얻는 의신득의를 가르친 바울의 교리와 일치한다.

이사야는 죄악의 어두운 곳에서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회복의 소망이 있으며, 밝은 내일이 있다는 희망찬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가 된지 70년후의 회복에서 체험하였고, 마지막 성취는 신약의 오순절 교회의 탄생으로 성취가 되었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주전 8세기 뿐만 아니라, 오고오는 모든 세대에 어두움에 앉아 좌절하며,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어다 주는 복음 그 자체이다.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시기전인 주전 8세기에 바울은 메시아가 오신후인 주후 1세기에 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얻는, 동일한 복음을 전했다.

참 고 문 헌

- Allis, Oswald T. *The Unity of Isaiah*.
Philadelphia: Presbyterian and Reformed Publishing Co., 1950.
- Dyrness, William. *Themes in Old Testament Theology*.
Downers Grove : Inter Varsity Press, 1979.
- Eichrodt, Walther.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ranslated by J.A. Baker. Vol. I. London : SCM Press, 1961.
- Ellison, H.L. *The Message of the Old Testament*.
Grand Rapids : Eerdmans Publishing Co., 1969.
- Kaiser, Walter C.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1979.
- Koehler, Ludwig and Walter Baumgartner, editors.
Lexicon in Veteris Testamenti Libros.
Leiden : E.J. Brill, 1958.
- MacRae, Allan A. *The Gospel of Isaiah*.
Chicago : Moody Press, 1977.
- Mendelsohn, Isaac. *Slavery in the Ancient Near East*.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1949.
- Oehler, Gustav Friedrich.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Translated by George E. Day. Grand Rapids : Zondervan Publishing House,
n.d.
- Rad, Gerhard von. *Old Testament Theology*. Translated by D.M.G. Stalker. New
York : Harper and Row, 1965.
- Robinson, Georg L. "Isaiah" *The International Standard Bible Encyclopaedia*. Edited
by James Orr. Chicago : Howard-Severance Co., 1930. pp.1495-1508.
- Vos, Geerhardus. *Biblical Theology : Old and New Testaments*. Grand Rapids :
Eerdmans Publishing Co., 1954.
- Westermann, Claus. *Elements of Old Testament Theology*.
Translated by Douglas W. Stott. Atlanta : John Knox Press, 1982.
- Wood, Leon J. *The Prophets of Israel*.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79.
- Young, Edward J. *The Book of Isaiah*. Vol. I.
Grand Rapids : Eerdmans Publishing Co.,
- Zimmerli, Walther. *Old Testament Theology in Outline*.
Translated by David E. Green. Edinburgh : T. & T. Clark, 1978.